

경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인기
광주·전남 2년 새 54배 ↑

기아차·한전 등 동참... 누적 판매 500억 돌파

지난 2009년 첫 판매 당시 5억여원에 불과했던 광주·전남지역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2년 만에 무려 54배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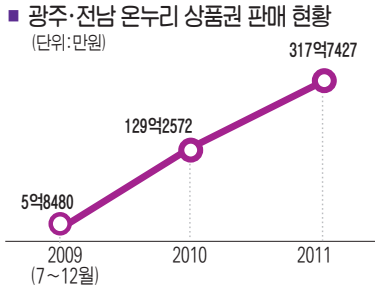
30일 시장경영진흥원과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이 2년6개월만에 5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2009년 7월 시판된 이후 광주·전남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452억 8480만원어치가 팔렸다. 올해 들어서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까지 60억4396만원어치가 추가로 판매돼 전체 누적 판매액은 511억7627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판매액은 2009년(7~12월) 5억8480만원, 2010년 129억2572만원, 2011년 317억7427만원이었다. 첫 해 5억여원에 불과했던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2년만에 54배 늘어난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설(12월12일~1월24일)에도 불타나게 팔려 82억4787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설(12월22일~2월1일)에 판매된 31억3662만원보다 3배가까이(51억1125만원, 163%) 증가한 액수다.

지역별로는 광주 동구 3억490만원, 서구 2억6161만원, 광산구 2억4723만원 등 광주지역이 9억9925만원을 판매했다. 전남은 목포 43억2033만



원, 광양 23억691만원, 순천 1억1433만원, 영암 1억119만원 등 72억4862만원어치를 팔아 전년보다 183% 증가했다. 대기업들의 동참도 이어졌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노사가 협의를 통해 설 선물비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했다. 이에 따라 광주공장 직원 67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6억7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몫을 했다.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도 이번 설에 2억7100만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특히 지난해 7월 광주 양동시장·달바우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꾸준히 전통시장을 애용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7000만원어치, 광주상공회의소는 300만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샀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대형할인점과 SSM 등에 치인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이 인기를 불러넣는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며 "1기판 1시장" 자매결연 맺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애용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건설 "올해는 경영정상화 원년"

28일 경기도 과천 청계산에서 열린 수주기원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원제에는 기공 시장 등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금호건설은 올해 수주 역량 강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재무구조 개선, 내부고객 공감경영 등을 핵심 경영전략으로 삼았다.

금호건설은 올해 해외 수주 비중을 15%로 확대해 경영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금호건설 기공 시장은 지난

28일 경기도 과천 청계산에서 열린 수주기원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원제에는 기공 시장 등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금호건설은 올해 수주 역량 강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재무구조 개선, 내부고객 공감경영 등을 핵심 경영전략으로 삼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남화토건 오늘 코스닥 상장

광주·전남 건설업체 중 처음... 지역 상장업체 25개사로

남화토건이 31일 광주·전남 건설업체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다. 이로써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지역 업체는 24개사에서 25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30일 남화토건(대표이사 최상준)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역 증권건설업체인 남화토건이 3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남화토건의 장외주식은 상장을 하루 앞두고 4% 가까이 상승, 3950원 에 마감했다. 최근 공모주 청약에서 1269대 1의 청약 대박을 터뜨린 데 이어 '기분 좋은 출발'이다.

남화토건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조경·전기공사 등을 수주하는 종합 건설사로 본사는 화순에 있다. 지난해 건설시공능력평가액은 1563억7600만원으로 전체 건설사 중 123위를 차지했다. 지난 3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건축부문 65%(390억원), 토목부문 30.76%(184억원)를 기록했다.

남화토건은 광주·전남지역 주한미군 군납수출업체 등록 1호 기업으로 30년 넘게 미군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장으로 웅산 미군기지와 경기도 미군 제2사단의 평택 이

전에 따른 미군 공사 수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이번 남화토건의 코스닥 상장으로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는 24곳에서 2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광주지역 상장업체는 총 10곳으로 유가증권시장에는 광주신세계, 금호종금, 금호타이어, 대우에이텍, 대유신소재, 로케트전기, 부국철강, 화천기공 등 8곳, 코스닥시장은 대신정보통신, 서산, 제이웨이, 서암기계공업 등 4곳이 진출해 있다.

전남지역 유가증권 상장업체는 금호산업, 동아에스텍, 디에스알제강, 보해양조, 조선내화, KPX화인케미칼 등 6곳이다. 또 코스닥 상장사는 비엔비성원, 와이엔텍, 파루, 행남자기, KPX생명과학, 폴리플러스 등 6곳에 남화토건이 추가돼 총 7곳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항만 물동량 13억

지난해 사상 최고 기록... 컨 물동량도 2000만TEU 돌파

작년 국내 항만 물동량이 총 13억 200만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또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도 2155만1000TEU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000만TEU 고지를 돌파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전년(12억4000만) 대비 8.1% 늘어난 13억 200만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물동량은 섬유류, 유류, 철재 등의 수출입 증가로 2010년보다 각각 11.9%, 12.9%, 24.2% 증가했다. 반면 인천항은 모래, 시멘트, 양곡 등의 수출입 물량 감소로 1.7%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유류, 유연탄, 자동차는 전년보다 각각 10.1%, 9.9%, 13.1% 늘어났으나 화공품, 모래는 3.1%, 9.3%씩 감소했다.

2011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2155만1000TEU를 기록, 사상 최초로 2000만TEU 시대를 열었다. 컨테이너 물동량 2000만TEU를 넘어선 것은 중국,

미국,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이다. 수출입화물은 1335만9000TEU, 연안화물은 47만3000TEU로 전년 대비 각각 8.2%, 25.0% 늘었다. 772만TEU에 달한 환적화물은 부산항 대체항 증가로 16.2%가 늘어나 전년(15.9%)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은 2010년보다 14.0% 증가한 1617만5000TEU를 처리했다. 특히 7월에는 14만4000TEU로 개항 이래 월간 최대 실적을 올렸다. 이는 글로벌 선사의 부산항 거점비중 확대와 중국의 기상악화에 따른 대체 항만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광양항은 배후권역 주요 화주의 수출입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년(208만8000TEU)에 비해 1.1% 감소한 206만4000TEU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200만TEU를 달성함으로써 국내의 선·화주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음을 입증했다.

연립뉴스

하이트진로 "소폭 전문가 구합니다"

자격증도 지급

하이트진로가 '소맥(소주+맥주) 폭탄주' 제조 전문가를 구한다.

하이트진로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블로그 '비어투데이(www.beer2day.com)'를 통해 소맥 자격증을 지급하는 온라인 대체항을 진행한다.

하이트진로는 '소맥 제조사를 찾아라'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자랑하는 100명을 선발해 자격증을 지급한다.

자격증 취득에 따른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신은주 상무는 "자격증을 취득한 소비자는 술자리 문화를 더욱 즐겁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소주와 맥주를 모두 생산하는 주류기업인만큼 진정한 음주 문화를 형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연립뉴스

중기청,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2624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업체들이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2624억원을 투입해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융복합·제조현장 녹색화·연구장비 활용 분야에서 연구기관과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벌이는 기술개발 사업에 1052억원의 지원예산을 배정한다. 또 '차질 없는 R&D 지원사업'을 270억원 규모로

실선했던 이 제 때 정부 지원이 받지 못한 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사용한다. 전국 5개 대학을 '산학협력 중점대학'으로 선정해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신기술 개발을 독려하기로 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홈페이지(http://www.smtech.go.kr)에서 다음달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립뉴스

광주 광산구 덕림동·삼거동 일대 1.3km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광주시 광산구 덕림동 및 삼거동 일원 1.3km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광주 광산구 1.3km를 포함해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km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제된 광주 광산지역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25.12km 중 군 훈련장 이전 부지와 빛그린산단 예정부지 23.82km를 제외된 곳

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31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를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사라진다.

전국적으로는 절반 이상이 무더기로 허가구역에서 풀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Table with financial data: 코스피지수 1940.55 (-24.28), 코스닥지수 510.33 (-5.48), 금리(국고채 3년) 3.36% (-0.02), 원·달러 환율 1127.30원 (+4.10)

Advertisement for '우울증' (Depression) treatment. Features a couple holding boxing gloves and text: "우울증"의 한방치료!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Includes symptoms, causes, and treatment information.